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 소재에서 봉제까지 일관체제로

“China plus one” 유력 후보

중국에서 섬유생산이 문제로 되면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로 “인도네시아”가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현재는 좀 덜하기는 하나, 인도네시아의 일본계 기업은 “일본으로부터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방직가공의 소재로부터 봉제까지의 생산기반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와는 분명하게 다른 강점으로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을 넘으며, 인건비도 다른 아세안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도 높지는 않다. 봉제업에서 실적도 풍부하다. 폴리에스터·면 혼 직물을 중심으로 로컬(local)에 일본계 방직가공 기업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소재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서의 잠재력은 충분하다.

일본계 방직기업도 인도네시아 봉제와 자사의 소재 비즈니스를 결합시키려고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도레이그룹을 결합시키려고 하고 있다. “도레이 인더스트리즈 인도네시아”의 사장은 “도레이의 섬유산업에는 봉제품 사업을 크게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키보 그룹의 “멜텍스”는 워킹 유니폼(working uniform)용 가공필을 판매하려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현지 봉제로 접근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인도네시아 봉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에서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힘, 즉 소재 공급력에서 인도네시아 가공품의 장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멜텍스 사장은 “아직은 아무도 성공한 일이 없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유니티카 그룹”의 방직선염기업(紡織先染企業)인 “유니텍스”는 원래의 “유니티카 텍스타일”로부터 다층구조방직사인 “팔파”가 옮겨와서 이를 활용한 개발로 성과를 보았다. 인

도네시아 봉제를 채용한 일본의 손이 큰 SPA(어패럴 제품 소매업)과의 협동이 기반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도 인도네시아 봉제에의 주목이 방직기업에게 파급되고 있다.

도카이 센코(東海染工) 그룹의 “도카이 텍스프린트 인도네시아(TTI)”는 “도카이 센코”가 인도네시아 봉제로 제품사업을 확대하는데 맞추어, “가공필을 공급함으로써 역할이 커진다.”고 지적하였다.

자가봉제(自家縫製)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기업도 있다. 이미 “다야니 가먼트”에서 봉제를 하고 있는 “다이와보 그룹”은 새로 중부 “자와”에서 봉제의 새 회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아크라베니다마”에서 “학생용 체육복”을 봉제하고 있는 “구라보 그룹”도 규모를 한층 더 크게 늘리려 하고 있으며, “봉제공장의 M&A도 고려하고 있다. 아이템도 유니폼이나 캐주얼까지 넓히고 싶다.”고 “구마텍스”사장은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소재부터 봉제까지 일관생산체제가 가능한 점에서 우위성이 있다.”고 “도요시마(豊島)”의 현지법인인 “TYSM 인도네시아” 사장은 말하고 있다. “아세안 EPA(ASE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동남아시아 제국 연합 경제 연휴 협정)”를 활용하여 태국 등으로부터 기능소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매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도 인도네시아의 강점이 되겠다.♣